

성공벤처기업시리즈(2)

일본내 한국 벤처기업 '인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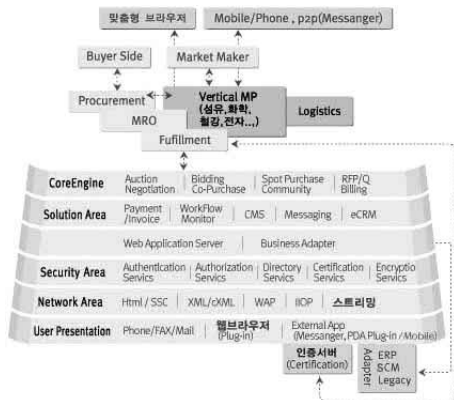
▲ 인디시스템 박종인 대표

인디시스템(대표 박종인)은 독자적인 웹브라우저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가진 한국의 인터넷 벤처 'INDI,Inc.'의 일본 국내 사업거점이다. 1999년 11월에 설립, 웹브라우저 디자인과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 국내 기업용의 각종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및 웹 마케팅

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인디시스템은 비접촉형 IC카드와 광디스크기능을 가진 카드형 광미디어 '인디어 카드'의 개발·제조·판매를 할 벤처 기업, 주식회사 칩미디어와의 사이에서 이후 양사가 전개할 '웹 브라우저 커스터마이징 기술'과 '인디어카드'를 융합시킨 토털 e-CRM소류선의 개발 및 국내에서의 판매에 대해 업무제공을 맺기로 했다. 또한 판매채널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기업 서포트·서비스를 전개할 주식회사 디 스탠드 뷰로부터 자본참가를 받아들여, 포괄적인 업무 제휴를 했다.

인디시스템은 브라우저의 외측디자인과 기능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하는 독자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유저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와 인터넷 관련기업용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사업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칩·온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비접촉형 IC를 사용한 개인인 증 기술과 소형광기록 미디어를 합한 매우 유난한 솔루션에 브라우저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을 상관하지 않는 간편하고 저코스트인 개인 인증을 행하는것이 가능케 됐다.



▲ 시스템 구축도

지회소식

전북지역 협회

[전북지회] 산업단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달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과학산업단지, 전주 제1·2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업종을 늘리거나 지원업무를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 가운데 로봇 등 자동화시설업종과 신소재·자동차부품·생물산업 등의 입주제한이 풀리게 되며 복사기나 축전지 등 메카트로닉스 관련 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1·2산업단지가 수년 동안 침체되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공단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협회

[부산지회] '중소 기술혁신개발사업' 설명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동의대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기술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 지원자금의 30%를 개발완료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의 기술개발자금은 무담보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부산·울산지역의 경우 작년에 161개 업체에서 모두 10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고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은 평가 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참여 신청은 1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